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우크라이나 전쟁의
배경·현황·쟁점에 관한 Q&A



사회진보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우크라이나 전쟁의
배경·현황·쟁점에 관한 Q&A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우크라이나 전쟁의 배경·현황·쟁점에 관한 Q&A

발행 2022.03.31.

퍼넛트 사회진보연대

전화 02-778-4001~2

팩스 02-778-4006

홈페이지 www.pssp.org

메일 pssp4001@gmail.com

글 실는 순서

전쟁 관련 사실 요약조모

Q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5
Q2. 이 전쟁의 전망은 어떠한가요?	7
Q3. 평화협상은 어떻게 되어나요?	11
Q4.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위기는 얼마나 심각한가요?	13

전쟁의 쟁점들

Q5.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일부라는 푸틴의 주장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18
Q6.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라는 푸틴의 주장은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21
Q7. 나토의 동진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불러온 것이 아닐까요?	24
Q8.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미 제국주의가 불러온 결과이기 때문에 러시아를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요?	27
Q9. 러시아 국내 정치와 이번 전쟁은 어떤 연관이 있나요?	29

세계 시민사회의 대응

Q10. 우크라이나 시민들과 사회운동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33
Q11. 러시아 시민들과 사회운동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36
Q12. 세계 시민들과 사회운동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39

마치며

Q13. 한국 시민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42
더 읽을 거리	44

2월 24일 새벽,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특별군사작전’ 선포 직후에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이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대규모 병력이 우크라이나 동부, 북부, 남부 국경으로 일제히 진격하고,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와 공항 곳곳이 폭격의 대상이 되어 침공 첫날 이미 우크라이나인 사상자만 최소 450명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전 세계에서는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2월 28일 주한러시아대사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393개 시민사회단체, 재한 우크라이나인, 우크라이나 교민 등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즉각 중단하고 병력을 철수할 것과, 러시아와 국제사회가 ‘외교적, 평화적 해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도 무엇보다도 이 전쟁이 하루 빨리 끝나기를 바라며 이 소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비극이 왜 벌어졌는지,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어떠한지에 대해 풍부한 토론을 돕는 Q&A 형태로 소책자를 구성했습니다. 이 소책자가 평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행동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2022년 3월 31일

사회진보연대

전쟁 관련 사실 요모조모

러시아가 침공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간 군사적·외교적 상황은 끊임없이 변화했고, 사상자 및 난민 등 전쟁 피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전개를 따라가기 위해, 전쟁 관련 기본적인 사실들을 모아봤습니다.

Q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작년부터 전선이 감돌았지만, 우크라이나와 전 세계의 시민들은 이를 경계하며 전쟁에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우크라이나 내 특별 군사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침공을 자행했습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으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 기어코 발발한 전면전쟁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일각에서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는 가운데, 상반된 주장도 있습니다. 서방의 위협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계 주민 탄압에 맞서는 정당한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러시아의 침공이 그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쟁이 만들어 낸 참혹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각각 이미 1만 명이 넘는 군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크라이나를 떠난 피란민은 350만 명이 넘습니다. 사회 기반이 무너지고, 군인과 민간인 가릴 것 없이 수많은 목숨을 잃은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수십 년이 지나도 아물기 어려운 상처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번 침공은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유엔헌장 제2조 4항은 국가 간 무력사용 및 위협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침공은 이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침공은 러시아가 준수하기로 약속한 민스크 협정의 위반이기도 합니다.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체결된 민스크 협정



재한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시위를 진행하는 모습이다. 재한 우크라이나인은 약 3800명으로 집계되는데, 고려인 동포가 그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평화를 염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매주 일요일마다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출처: 뉴시스]

은 ‘즉각적이고 완전한 휴전’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경 통제 확립’을 명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를 불법적으로 침해한 러시아의 행위는 협정 위반일 뿐더러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고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유엔총회 결의안에 세계 141개국이 찬성하였고, 3월 16일 국제사법재판소 또한 러시아에 대해 즉시 무력사용을 중지하라는 잠정조치를 내렸습니다.

* 유엔헌장 제2조 4항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 다른 국가의 영토보존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해 또는 유엔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

Q2. 이 전쟁의 전망은 어떠한가요?

2월 24일 새벽, 푸틴 대통령의 ‘특별군사작전’ 선포 직후에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이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대규모 병력이 우크라이나 동부, 북부, 남부 국경으로 일제히 진격하고,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와 공항 곳곳이 폭격의 대상이 되어 침공 첫날 이미 우크라이나인 사상자만 최소 450명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전쟁 시작 후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사방에서 한 번에 쳐서, 단시간에, 저비용으로 전쟁을 끝낸다는 푸틴 대통령의 구상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전선도 교착되어 있는데, 동부전선의 경우 크림반도와 돈바스를 잇는 요충지 마리우폴 함락에만 한 달 이

상이 걸렸습니다.

당초에는,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오래 버틸 것이라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러시아의 전력은 우크라이나를 압도합니다. 러시아는 세계 2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반면,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은 세계 22위입니다. 또한, 러시아는 이미 겨울부터 대규모 병력을 접경지역에 배치하며 전쟁 준비 상태에 돌입해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러시아군은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셈입니다. 러시아군은 사상자가 1만 명이 넘어, 전력의 10% 이상을 이미 잃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우크라이나 민중의 거센 저항으로 전쟁이 장기화 되고, 전 세계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가 쏟아지면서, “푸틴이 전투에서는 이기더라도 진정으로 전쟁을 이기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피엔스』 저자로 유명한 이스라엘 역사학자 유발

러시아-우크라이나 군사력 비교
2020년 기준, 자료: BBC, 연합뉴스 자료 재구성

		러시아	우크라이나
병력	정규군	90만 명	20만 명
	예비군	200만 명	90만 명
전투기		1511대	98대
공격헬기		544대	34대
탱크		12240대	2596대
장갑차		30122대	12303대
야포		7571대	2040대

하라리는, ‘푸틴은 설령 모든 전투에서 이기더라도 전쟁에서는 패하는 셈’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침공의 명분으로 든, “우크라이나는 진짜 국가가 아니고, 우크라이나인들은 러시아의 통치를 갈망한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이 우크라이나인들의 용기 있는 저항으로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쟁의 피해가 커질수록, 우크라이나의 저항심과 국가 정체성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교수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는 침공 전보다 더 약하고 가난해질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현대의 전쟁은 천문학적인 자원을 소비합니다. 민족의식이 희미했던 전현대사회



3월 4일 밤,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핵발전소에 러시아군이 쏜 포탄이 떨어지고 있다. 이 공격으로 발전소 내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자포리자는 체르노빌, 후쿠시마 핵발전소보다 규모가 크며, 우크라이나 외교부에 따르면 “자포리자가 폭발하면 체르노빌 사고보다 피해가 10배 더 클 수도” 있었다. 자포리자 시민 수천 명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저지를 시도했지만, 러시아군은 시민들을 향해 발포하고 핵 시설 포격에 나섰다. [사진 출처: 우크라이나 전략통신정보보안센터]

와 달리 현대 ‘민족국가’의 국민은 정복자의 지배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큼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민중이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크루그먼 교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의 비용을 결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 전망합니다.

문제는 러시아가 궁극적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푸틴 대통령이 받아들일 것인가입니다. 이미 러시아에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이 전쟁의 결과에 정권 유지 여부가 달린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전부 아니면 전부’의 태도로 전쟁에 임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핵 무력 사용 위협이나, 체르노빌·자포리자 핵 발전소 공격이라는, 위험천만한 행동들을 불사해왔습니다. 예상보다 장기화된 전쟁에 압박을 느낀 푸틴 대통령이 극도의 비인도적 무기, 즉 생화학무기나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러시아군이 폴란드 국경으로부터 불과 25km 떨어진 지점을 폭격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만약 실수로라도 폴란드나 발트3국과 같은 인근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국 영토를 공격하게 되면, 나토는 조약에 따라 개입을 할 수밖에 없어 확전이 될 것입니다. 친러 성향의 루카셴코 대통령이 1994년부터 집권 중인 벨라루스나, 내전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았던 시리아 용병의 참전으로 확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 전쟁이 더욱 더 큰 전쟁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으려면, 평화를 촉구하는 세계 시민과 푸틴 정권에 반대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시민의 힘으로 하루 빨리 종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Q3. 평화협상은 어떻게 되어나가요?

전쟁이 한 달이 넘는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국은 5차까지 평화협상을 진행했으나 명시적인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쟁의 종결에 우선순위를 두는 모습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직접 침공의 이유로 밝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도’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15일 “나토 가입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물러났습니다. 여당 ‘국민의 종’도 성명을 내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대신 미국·러시아·터키 등이 참여하는 ‘새 안전보장 조약’에 서명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돈바스) 분리·독립 문제에 대해서도, 영토 보전을 강조하던 입장에서 물러났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3월 27일 러시아 언론사들과의 인터뷰에서 영토 문제는 타협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영국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도 “승리란 가능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느냐는 것”, “물론, 우리의 땅은 중요하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통치 구역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완전한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주요한 쟁점은 ▲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 ▲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방안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스웨덴·오스트리아 모델의 중립국화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상당한 수준의 ‘비무장화’를 포함하므로, 우크

라이나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대규모 러시아 병력의 침공을 받은 상황에서, 비무장화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상 ‘항복’ 요구로 느낄 가능성이 큼니다. 우크라이나 측 협상 대표는 “우리는 러시아와 직접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라며 “중립국화 모델은 오직 우크라이나 식으로만 돼야 하며, 법적으로 검증된 안전 보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러시아 양자가 참여하는 안전 보장은 결국 우크라이나 안보에 미국이 개입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비해 이를 크게 나은 선택지로 여길 지가 불투명



1994년 1월, 서로 손을 맞잡은 미국 클린턴 대통령, 러시아 옐친 대통령, 우크라이나 크라우츠크 대통령의 모습.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는 소련 해체 후 우크라이나 국경 안에 남은 핵무기를 해체하고 우크라이나가 NPT(핵무기비확산조약)에 가입하는 대신, 미국-러시아-영국이 우크라이나의 독립-국경-주권 존중, 위협-무력 사용 자제를 약속한 안보 보장이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은 사실상 부다페스트 각서 위반이었지만, 각서에 직접적인 개입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근거로 서방은 개입하지 않았다.

합니다. 1994년 미국·러시아·영국의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이번 침공으로 무참히 파기된 상황이므로,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안전보장 방안에는 법적 ‘개입 의무’를 명확히 명시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 경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다시 공격했을 시 미국이나 다른 안전 보장국이 개입해야만 합니다.

각국의 안보에 대한 입장이 충돌하더라도 이를 무력 사용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외교협상이 이뤄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군사공격 중단과 조속한 철군이 필요합니다. 전쟁의 전개 양상에 따라 협상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세계 시민은 러시아에 우선 무력 사용 중단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이 평화협상 진행 중에도 공격을 지속하고 있으며, 인도주의 통로(민간인 대피 통로)조차 확실히 보장하지 않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Q4.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위기는 얼마나 심각한가요?

유엔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러시아 침공 3주 만에 우크라이나 난민이 300만 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쯤인 140만 명은 어린이로, 아동 난민이 1초에 1명꼴로 발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유엔은 우크라이나 전체 인구 약 4,300만 명 중 1,200만 명이 구호와 보호를 필요로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피난하는 인구의 대부분은 여성과 아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집계에 따르면, 3월 22일까지 어린이 117명이 사망하고 15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유엔은 전쟁 약 한 달이 지난 22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숨진 민간인이 950명, 다친 민간인이 1천 5백여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전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정확한 피해 숫자를 알기는 불가능하므로, 실제 사상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단적으로, 한 달 넘게 러시아군에 포위된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서 희생된 민간인만 5천 명이 넘는다고, 바딤 보이첸코 마리우폴 시장은 밝혔습니다.

전쟁이 끝나더라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결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고, 엄청난 빈곤에 직면할 것입니다. 유엔개발계획(UNDP)과 우크라이나 정부의 보도를 종합하면, 이미 1000억 달러(약 123조 7800억 원) 상당의 기반시설이 파괴되었고, 우크라이나 인의 90%가 향후 12개월 내에 빈곤에 직면할 것이며, 우크라이나 경제는 20년 전으로 후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러시아군의 무분별한 전술은 전쟁 피해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마리우폴에는 평화협상 진행 중에도 인도주의 통로(민간인 대피 통로)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시민 10만 명 이상이 전기나 수도, 가스도 공급되지 않는 상태로 갇혀 있습니다. 러시아 군은 마리우폴 시 점령을 위해 총공세를 퍼부으며 어린이병원, 산부인과, 내과 병원에도 공습을 감행해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군이 산부인과 병원에서 직원과 환자들을 추방하고 전투 태세를 갖추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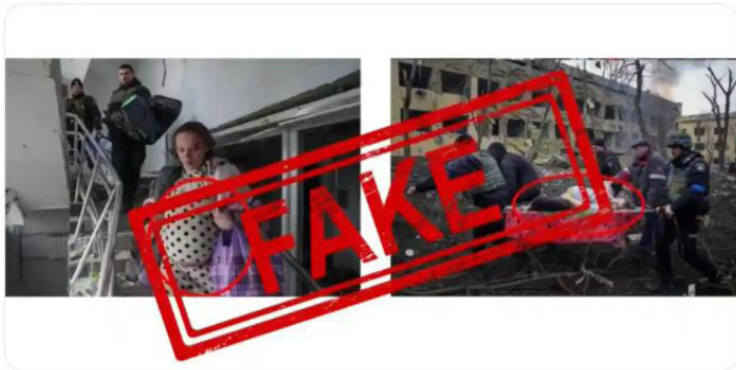
Russian Embassy, UK

@RussianEmbassy

Russia government organization

...

FM #Lavrov on the #Mariupol attack: The maternity house was long non-operational. Instead, it was used by  armed forces and radicals, namely the neo-Nazi Azov Battalion. Moreover, #Russia warned #UN Security Council about this 3 days a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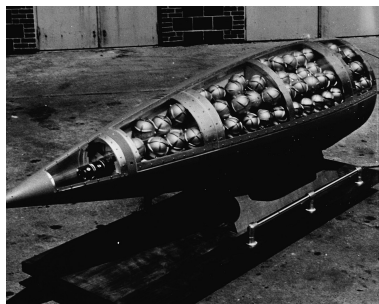
MFA Russia  and 9 others

1:31 PM · Mar 10, 2022 · Twitter Web App

주영 러시아 대사관은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무너진 산부인과 병원에서 구조된 여성들의 사진을 두고 “가짜”, “연기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왼쪽 사진의 여성은 구조되어 이틀 뒤 출산한 사실이, 오른쪽 사진의 여성은 병원 잔해에 깔려 있다 발견되었으나 결국 산모와 아이 모두 사망한 사실이 보도되었다. [사진 출처: 주영 러시아대사관 트위터]

러시아군이 심각한 비인도성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사용이 금지된 집속탄, 진공폭탄, 백린탄 등을 사용했다는 보도나 주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자국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출



왼쪽 사진은 집속탄이다. 한 개의 폭탄(모폭탄) 속에 수많은 또 다른 폭탄(자폭탄)이 들어가 있는 폭탄으로, 넓은 지형에서 다수의 인명 살상을 목적으로 한다. 모폭탄이 목표지점 위의 공중에서 터지면 수백 개의 소형 자폭탄들이 쏟아져 나와 폭발한다. 불발탄도 추후에 대인지뢰처럼 터져 큰 피해를 준 경우가 많다. 오른쪽 사진은 진공폭탄이다. 주변 산소를 빨아들여 고온폭발을 일으키기 때문에(열압력탄) 진공 폭탄으로 불리는 대량살상무기다. 고열과 고압으로 인체 내부 장기까지 손상시키며 일반적인 폭탄보다 폭발이 강력하여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힐 수 있다.

신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난민을 수용하는 조치들을 진행 중입니다. 유럽연합은 27개 회원국 모두가 난민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와 의료·교육 서비스를 보장하도록 한 ‘임시 보호 규정’을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적용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는 국경을 개방하고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난민의 60%를 받아들였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난민이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인근 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일본, 필리핀, 뉴질랜드, 필리핀, 스리랑카 등 우크라이나에서 멀리 떨어진 나라들이나 경제규모가 크지 않은 나라들도 난민 수용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난민 문제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내 거주 우크라이나인 3800명 대상 인도적 특별 체류 조치, 우크라이나 동포와 그 가족의 비자 신청 서류 간소화 정



백린탄은 화학무기로, 폭발되면서 광범위한 지역에 불꽃과 독성의 연기를 퍼뜨린다. 인체에 불이 붙을 경우 매우 끔찍이 어려워 극심한 고통을 일으킨다.

도만 이뤄졌습니다. 경제력 순위 상위 10국 중 한국과 중국, 인도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아들였습니다.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도 역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전쟁의 쟁점들

러시아의 침공을 두고 몇몇 쟁점에서 서로 다른 시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침공의 이유로 제시한 바들이 타당한지부터 시작하여,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이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까지 등등이죠. 본 파트에서는 가장 많이 제기되는 쟁점들을 중심으로 그 내용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정리해봤습니다.

Q5.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일부라는 푸틴의 주장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근거로 여러 가지를 들었습니다.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에 우크라이나가 가입할 우려, 우크라이나에 루소포비아(러시아혐오)와 네오나치가 부상하면서 400만 명이 대학살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주장 등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역사적으로 존재해서는 안 될 나라였다는 주장도 폄하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고대 러시아 땅으로 항상 러시아 민족의 일부였다”부터 시작하여, “우크라이나가 진정한 의미의 독립국이었던 전통이 없다. 현대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러시아, 더 정확히 말하자면 볼셰비키가 만든 것이다”라고 말하며 우크라이나의 영토 형성이나 우크라이나의 독립은 ‘실책’, ‘불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래로, 국제사회에서 엄연한 실체를 가진 주권국가로 인정받아왔습니다. 독립 당시 우크라이나 민중들은 국민투표에서 독립 찬성 85%라는 압

도적인 여론으로 독립을 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연설에서 “그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민은 소련 붕괴 이후 발생한 새로운 지정학적 현실과 신생 독립 국가들을 인정”했다고 말했듯,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를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역사가 어떻든 간에, 이 시점부터 우크라이나는 ‘진정한 의미의 독립국’이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고대 러시아’의 영토나 ‘러시아 민족 공동체’를 근거로 우크라이나는 “우리의 일부”이며 그러니 “특별군사작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특수한 관계라고 주장하는 것은 21세기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납득될 수 없습니다.

세계 각국은 물론 현재의 국경에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연설에 언급되듯, 러시아에는 1954년 당시에는 소련 내 행정구역 변경의 의미였던 크림 반도 할양이 그대로 독립 후 우크라이나 영토의 근거가 된 것에 대한 불만이나, 우크라이나 독립으로 인해 우크라이나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곡창지대이자 전략적 요충지를 ‘잃었다’고 생각하는 정서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침공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침공 직후 소집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마틴 키마니 유엔 주재 케냐 대사가 한 연설이 충분히 답이 될 것입니다. 키마니 대사는 “케냐를 비롯한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제국의 종말과 함께 탄생했다. 우리의 국경은 우리가 직접 그린 것이 아니며, 제국들에 의해 결정됐다”면서도, “만약 독립 당시 우리가 민족·인종·종교적 동질성에 기반해 국가를 수립하려 했다면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푸틴 대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인 2월 21일에 진행된 대국민 연설에서 '우크라이나는 고대 러시아 땅으로 항상 러시아의 일부였다', '우크라이나가 진정한 의미의 독립국이었던 전통이 없다. 현대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러시아, 더 정확히 말하자면 볼셰비키가 만든 것이다'라고 말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밝혔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통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고전하고 있는 양상을 봐도, 개전을 하면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세력이 러시아군에 호응할 것이라는 푸틴 대통령의 계산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 상황은 독립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열망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과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분쟁 개입이, 오히려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와 구별되는 독자적 정체성을 더 강하게 추구하게끔 만들었다는 지적은 이미 많았습니다. 이번 전쟁은 같은 맥락에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 우크라이나 내 친러 분리세력의 형성과정

우크라이나 국내의 특수성(인구 구성, 경제적, 정치적 성향의 지역 격차) 역시 살펴봐야 합니다. 인구 구성 차원에서는 동부에 러시아계 비중이 높으며, 경제에서는 농업 중심의 서부에 비해 공업 중심의 동부의 월 평균 임금이 높습니다. 정치적 성향에서도 지역 간 큰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우크라이나 서부는 친서방 외교노선과 함께 유럽연합(EU)과 나토 가입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은 반면, 러시아와 접경하는 동부 지역은 러시아어 사용률도 높고 친러 외교정책과 독립국가연합(CIS)과의 협력을 지지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조건 위에서, 2014년의 우크라이나 사태는 2013년 11월 야누코비치 정부가 EU와의 제휴협정을 철회한 것에 반대하는 시위와, 이에 대한 무력 진압으로 촉발되었습니다. 지속된 시위의 결과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실각하고, 의회는 반러 노선을 표명합니다. 이는 2014년 2월 27일부터 친러 무장세력에 의한 크림반도 장악과 이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으로까지 이어집니다. 4월부터는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도 분쟁이 발발했습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민스크 협정이 타결되었지만, 이후로도 산발적 전투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정치·경제적 갈등의 성격이 나타나는 상태였습니다.

Q6.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라는 푸틴의 주장은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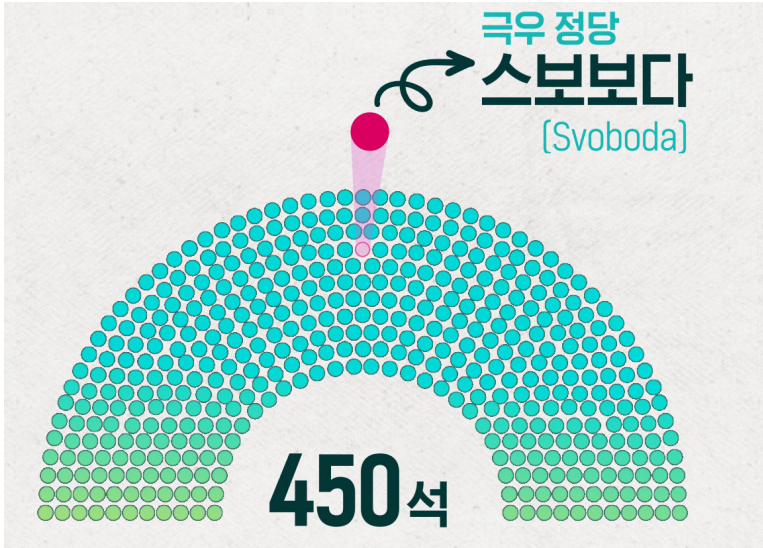
푸틴은 제2차 세계대전의 영광(소련의 ‘위대한 애국전쟁’)을 호출하고자 나치에 대한 증오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는 파시즘에 맞서 수천만의 희생자를 낸 소련의 희생을, 빛을 바라게 할 뿐입니다.



네오나치 성향을 지닌 아조프 연대. 아조프 연대는 2014년 우크라이나 동부 전쟁 중 결성된 네오나치 성향의 민병대였다. 2014년 11월 정규군에 편입되어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다. [사진 출처: MSNBC]

우크라이나의 네오나치 문제를 없애는 것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추앙하는 건국영웅 중에는 분명 나치 협조 전력을 가진 이들이 있고,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당시 분리주의자들과 싸웠던 네오나치 주축의 민병대는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방위군(아조프 여단)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서방의 무기지원이 이들 손에 들어가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극우주의 정당의 지지도는 약 2% 정도이며, 지금 네오나치의 영향력은 주로 제도권 밖 거리에서, 주로 그래피티의 형태로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조부는 소련군 소속으로 나치와 싸웠고, 홀로코스트에서 많은 일가친척이 희생되었던 유대인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여 당선시켰습니다. 아조프 여단이 내부부의 지원을 받는 정규군으로 편제되면서, 극단적인 극우주의자들은 통



우크라이나 극우 정당 스보보다(Svoboda). 스보보다는 비례대표제에서 2.5%의 득표율을 받아 단 한 석도 챙기지 못했고, 지역구에서는 서부 지역인 이바노 프랑키비츠, 딱 한 곳에서 당선됐다. [출처: SBS]

제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의회는 2021년 반유대주의 예방법을 통과시켰고, 2022년 2월 개정안을 통해 국제홀로코스트추모연맹이 규정한 반유대주의 행위를 한 자는 최대 5년, 공직자는 3년 간 공직 취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우크라이나에서 네오나치의 존재는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러시아의 즉각적인 개입이 없다면 인도주의적 위기를 불러올 것이냐고 하면 그것은 과장 내지 거짓에 가까워 보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의 명분으로 탈나치화를 꺼내들었지만, 이번 전쟁은 오히려 우크라이나와 각국의 네오나치들에게 결집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7. 나토의 동진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불러온 것이 아닐까요?

푸틴 대통령은 “특별군사작전”(우크라이나 침공) 명분을 밝히는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가 필요하다는 주장, 우크라이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역사인식과 함께, 나토의 동진(東進)과 조지아·우크라이나가 나토와 진행한 합동훈련 등은 러시아를 위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토의 동진은 역사적 사실이고,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가입을 추진한 것이나 합동훈련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느끼는 안보 위협은, 다른 근거들에 비해 물질성이 있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나토의 동진으로 인해 러시아가 느끼는 안보위협은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정치외교 분야를 다루는 학자들도 많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현실주의적 인식은 제도와 규칙이 강대국의 무력 사용을 막을 수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세계의 질서는 힘의 균형을 통해서만 달성된다는 것입니다.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인 존 미어샤이머 교수는 2014년 “우크라이나 위기는 왜 서구의 책임인가”라는 글을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하였는데,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외교부 트위터가 침공을 정당화하는 근거인양 그 글을 공유하면서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주의적 인식은 우리 주위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는데, 북한 외무성의 논평이 그 예입니다. 북한은 침공 사흘 뒤에 ‘미국은 국제평화와 안정의 근간을 허물지 말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국제언론들과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은 나토의 일방적인 확대와 위협으로 하여 유럽의 세력균형이 파괴되고 러시아의 국가안전이 엄중히 위협을 당한 데 있다”고 미국과 나토를 비판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주의적 인식은 사태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침공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명확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러시아의 조지아 침공과 크림 반도 합병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안보 위기의식을 불러왔고, 그 결과 친서방 행보와 나토 가입 추진에 이르렀다는 주장 역시, 러시아가 안보 위기감 때문에 침공을 했다고 파악하는 것만큼이나 현실주의적인 인식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러시아의 침공은 우크라이나의 우려가 사실이었음을 그 자체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현실주의적 인식은 러시아와 푸틴의 침공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에 있어 질서와 조약은 결국 종잇조각일 뿐이니, 전쟁을 피하기 위해 러시아가 아닌 말이 통하는 주체들, 즉 미국과 서유럽,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러저러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조언으로 귀결됩니다. 나토는 동진을 멈춰 러시아를 자극하지 말았어야 했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현실적으로 러시아의 심기를 거스르지 말고 그 영향권 아래 있으라는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경솔하게 친서방 행보를 해서 전쟁을 불러왔다는 주장도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나토가 확장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새겨들어야 합니다. 냉전 종식 이후에도 나토가 계속 유지되어 온 것이, 지금 벌어

지는 위기의 한 축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폴란드·체코·헝가리(1999년),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불가리아·루마니아(2004년), 알바니아·크로아티아(2009년), 몬테네그로(2017년), 북마케도니아(2020)가 가입하며 나토의 영역은 동쪽으로 꾸준히 확장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크라이나 민중에게 군사공격을 할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나토 동진을 근거로 러시아의 침공을 정당화하는 것은, 나치 독일의 생존공간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대전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반문해 보겠습니다. 만약 나토가 멈춘다는 약속을 했다면 러시아는 침략을 하지 않았을까요?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행보가 없었다면 2022년 2월의 침략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물론 역사에는 가정이 없고, 미래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러시아가 느끼는 안보위기는 스스로 재생산하는 측면이 있고, 러시아는 이를 풀어내기 위한 노력 대신 우크라이나 침공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자연현상에 대해 설명하듯이 나토의 동진과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행보가 침공을 불러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러시아가 느끼는 안보위기는 스스로 동력을 공급하는 자기실현적 예언에 가깝습니다. 러시아 제국이나 소련 모두 종심(縱深) 확보, 즉 서유럽과의 완충 지대를 강박적으로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서유럽 사이에는 자연적 방어물로 기동할 커다란 산맥이나 큰 강이 없이 광활한 평야만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석유 재벌(올리가르히)가 지배하는 러시아가 안정적 인 국가 건설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련 시절의 제조업 기반이 무너진 후, 러시아는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에 가까워졌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라 위기 강화와 약화를 계속 겪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내부의 취약성을 극복하고자 러시아는 지리적 영향력 확대라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폴란드, 체코, 헝가리 같은 옛 소련 시절의 위성국가들은 이러한 러시아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여기에 위기감을 느끼고, 이를 근거로 러시아가 취하는 행동은 다시금 주변국의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민중은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겠다는 결정을 했고, 러시아는 수많은 희생을 불러올 전쟁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러시아의 심기를 거스르지 말았어야 한다는 ‘조언’을 던지기 보다는, 침공에 맞서는 우크라이나 민중을 지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Q8.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미 제국주의가 불러온 결과이기 때문에 러시아를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요?

앞 질문에서 현실주의적 인식에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기는 힘들다는 점을 살펴보았는데요, 적극적으로 침공을 정당화하는 입장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를 지지해

야 한다거나, 적어도 러시아를 비판하면 안 된다는 의견인데요. 이는 미국과 나토의 과거 행적을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 제국주의를 비판하면서 러시아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우크라이나 민중의 자결권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는 전후 형성된 민족자결이라는 원칙 아래 쌓아온 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번 침공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명시적인 균열을 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는 강대국들이 표면적으로나마 무력이 아니라 규칙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전쟁이 끊이지 않던 유럽에서 독일을 안정적으로 유럽연합으로 끌어들이면서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불완전하나마 핵무기의 확산을 막은 것도 이러한 국제질서의 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러시아의 노골적인 침공을 막던 그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라는 힘이 지금은 사라졌는가가 질문이 될 것입니다.

냉전 종식 이후 중국은 미국의 권유에 따라 2001년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고 세계 최대 수출국이 되어 빠른 경제성장을 이뤘습니다. 반면 미국은 중동에서의 '테러와의 전쟁'과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점차 영향력이 감소하고, 트럼프의 등장과 함께 고립주의를 강화합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이 뒷받침하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토대가 부실해진 이유입니다. 미국과 나토가 스스로 내세운 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들이 중동 지역에 개입하는 과정에는 온갖 불

의(不義)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만 떠올려 봐도 이는 명백한 일입니다. 그로 인해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설득력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래는 어떠할까요? 기존 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현실이므로, 안타깝게도 무력으로 힘의 균형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점점 더 많이 터져 나오는 것을 막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사는 한반도의 핵 위기 해결도 한층 어려워지겠지요.

과거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실제로 그 이상에 걸맞게 운영되지 않은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기존 질서보다 더 평화롭고 민주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나마 존재하는 질서 자체를 힘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우리가 지지할 수 있을까요? 만약, 러시아가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하는 바를 얻게 된다면, 세계는 힘의 균형만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미래로 확실히 한 발 더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세계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러시아와 전 세계 시민에게 재앙적일 것이 자명합니다.

Q9. 러시아 국내 정치와 이번 전쟁은 어떤 연관이 있나요?

푸틴 대통령은 소련 해체 후 러시아 체제전환기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집권 초부터 강한 국가와 강력한 지도자 상을 내세워 이러한 혼란을 어느 정도 정리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여겨진 것이, 그가 장기 집권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라크 전쟁은 세계에 크나큰 충격을 주었다. 이라크 침공 이후 미국은 역설적이게도 세계 초강대국으로서의 영향력을 점차 상실했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막대한 역량을 투여한 것도 영향력을 상실한 중요한 계기였다. [사진 출처: 중앙일보]

현재 집권 4기인 푸틴 대통령의 임기는 2024년까지이며, 헌법과 선거법 개정예 따라 2036년까지 사실상 종신집권할 수도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초장기 집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푸틴은 구 소련 지역 국가들에 대한 개입은 물론이고, 시리아 내전 개입, 이란 핵 문제 중재 등 국제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이는 과거 소련보다 위상이 낮아진 러시아의 현 상태에 대한 불만과, ‘세계 초강대국’ 소련에 대한 향수를 가진 국민들에게 어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군비 증강과 군사력 동원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통치전략은 ‘유라시아주의’라는 이념적 기반으로 뒷받침되게 됩니다. 많은 언론들에서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의 기저에 이러한 유라시아주의와 이에 근거한 팽창주의 정책이라는 요인이 있

음을 짓고 있습니다.

유라시아주의는 유라시아 공간이 하나의 지역단위이며, 그 이외의 공간과는 (역사와 가치 측면에서) 차별성을 가진 지역이라고 인식합니다. 이는 대내적으로는 러시아 정교라는 종교적 정체성과 정치-종교의 밀착, 서구식 개인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 서구와 다른 강력한 중앙집권체제에 대한 옹호 등으로 나타납니다.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구소련 지역 국가들과 서방의 협력, 개입 등은 러시아의 전통적 영향권역을 축소하고 압박하려는 시도라는 주장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유라시아 지역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제안으로 이어지는데, 결국 러시아 중심의 지역 재편과 러시아의 영향력 팽창을 의미합니다.

러시아 유라시아주의의 대표주자는 푸틴의 주요 정치적 고문 중 한 명인 알렉산드르 두긴입니다. 두긴은 미국이 주도하는 신세계질서와 러시아가 주도하는 신유라시아질서를 대립시키며, 러시아가 추진할 과제로 ‘러시아와 소련의 재구성, 그리고 대외적 확대와 국제적인 연대’를 제시합니다. 두긴은 유라시아주의적 관점에서 우크라이나를 동·서로 분리할 것을 주장했으며, 2008년에 이미 크림반도의 병합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두긴의 사상은 푸틴이 주창해온 유라시아경제연합이나 ‘강한 러시아의 부활’과 공명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푸틴 행정부는 유라시아주의에 기반한 팽창주의적 외교정책을 본격화됩니다. 유라시아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유라시아경제연합, 상하이협력기구, 집단안보조약기구와 같은 다자기

구를 설립했습니다. 팽창주의 정책으로 미국, 나토와의 대립이 격화되자, 2015년 12월에는 이들을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는 ‘러시아 연방의 국가안보전략’ 문서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푸틴 행정부의 유라시아 지역 패권 추구는 구소련 영토 범위에서 영향력을 공고히 하려는 시도로 나타납니다. 이는 2008년 조지아 전쟁, 2014년 크림반도 합병과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분쟁 개입, 그리고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까지 발전합니다. 조지아 전쟁을 통해 러시아 남부 국경지대인 중앙아시아를 완충지대로 만들었다면,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서도 서부 국경지대인 우크라이나를 완충지대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푸틴은 해당 국가 내 친러 분리주의 세력을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조지아의 경우 남오세티야 공화국과 압하지야 공화국을, 우크라이나의 경우 도네츠크 공화국과 루간스크 공화국을 명분으로 침공을 감행했죠. 조지아,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처지인 몰도바의 시민들 역시 전쟁의 불안감에 떨고 있는데, 몰도바에도 친러 분리주의 세력인 트란스니스트리아 공화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시민사회의 대응

우크라이나 침공에 열심히 대처하고 있는 주체는 각국 정부나 유명 인사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과 사회운동 역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죠. 전쟁의 당사자인 우크라이나 시민들뿐만이 아닙니다. 침공을 감행한 러시아에서도,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도 전쟁을 반대하는 물결이 나타나고 있죠. 본 파트에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세계의 시민들이 전쟁에 반대하여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소개합니다.

Q10. 우크라이나 시민들과 사회운동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러시아가 멈추면 전쟁이 끝난다. 우리가 멈추면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없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러시아의 침공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구호입니다.

전쟁 발발 직후 우크라이나의 대표적인 노동인 우크라이나노동조합연맹(FPU)과 우크라이나자유노동조합연맹(KVPU)은 성명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며 조합원과 시민들이 함께 저항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에는 러시아가 전쟁을 중단하고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철군하도록 러시아를 최대한 압박함으로써 우크라이나 민중들의 저항에 연대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FPU는 “러시아는 평화로운 도시와 군사시설을 폭격하며 전면전을 개시했다. 1941년 히틀러가 한 것과 같은 일을 벌인 것이다”라고 규탄하며 “모든 조합원들은 패닉에 빠지지 말고 평정을 유지

하며 시민들에게 생필품을 계속 공급할 수 있도록 일터에서 직업적 임무를 지속하자”고 호소했습니다. 또 “각국 노총이 러시아 대사관 앞 규탄집회를 개최하고 저항하는 우크라이나 민중들에게 방어진·재정적 지원을 조직해 줄 것”을 호소하는 한 편 “자국정부가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도록 압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KVPU 역시 “2월 21일 푸틴 대통령이 루한스크와 도네츠크를 독립된 주권국으로 인정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며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성, 영토보전을 침해하는 행위로 사실상 러시아가 민스크 협정을 파기한다는 뜻”이라고 규탄하며 “우크라이나 민중들은 침략에 저항할 것이고 독립과 영토보전, 문명화된 선택지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고 승리할 것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르키우, 마리우폴, 키이우 등지에서 러시아군이 압도적으로 군사적 우위를 누리며 무차별 공습으로 주거지와 민간시설을 파괴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인도주의적 통로’ 개설을 합의한 후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대피와 구호품 전달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국가기구를 넘어서는 광범위한 자발적 대중 동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포리자 핵발전소가 위치한 에네르호다르시를 비롯한 몇몇 도시에서는 러시아군 탱크의 진로를 막기 위해 비무장 시민들이 인간띠를 만들었고, 헤르손, 멜리토폴 등 러시아군이 점령한 남부의 도시들에서도 침공에 저항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각 도시에서는 노동조합, 페미니스트 조직, 좌파단체의 활동가들이 국토방위군에 참여하거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연대그룹을 구성하여 안

전한 장소를 찾아 대피하거나 국경 밖으로 피난하려는 시민들을 돕고 식량·의약품 등 구호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각 도시에서 피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숙소 (교회, 체육관, 식당 등) 목록이나 차량으로 이동 가능한 경로 등을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안내하는 등, 국가기관에 의존하지 않는 수평적 연대가 조직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회운동은 국제사회에 지금 당장 시급한 과제는 “러시아의 침략에 맞선 우크라이나의 저항에 연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폭격을 당장 눈앞에서 마주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민중들의 분노에 대한 공감과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우크라이나인들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의지를 존중할 것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러시아가 전쟁을 멈추도록 국제적인 압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방어력이 없다면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지닌 러시아에 맞서 저항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침공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로부터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 IMF 등의 외채탕감 역시 중요하며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Q11. 러시아 시민들과 사회운동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러시아 내부에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지지 여론이 높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내 여론은 조사하는 기관에 따라, 설문문의 문항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국영기관의 조사에서 지지 여론이 높게 나타납니다. 국영기관인 러시아여론연구센터(WCIOM, 브찌움)의 최근 조사에서는 71%가 “특별 군사작전”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다른 국영기관인 여론재단(FOM)의 조사에서는 65%가 “러시아의 특별 군사작전 개시”에 찬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사설여론조사기관인 러시아인 필드의 조사에서는 58.8%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행동”을 지지한다고 답변했고, CNN이 발주하여 영국 여론조사 업체 사반타 콤레스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저지하기 위해 러시아가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응답자의 50%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재통합을 위해 러시아가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응답자의 36%가 찬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강력한 언론 통제로 인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차단되어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침공 직후부터 전쟁에 반대하는 공개서한, 호소문, 소셜미디어 게시물 등의 형태로 꾸준히 나오고 있고, 정부의 심각한 탄압을 뚫고 주요 도시에서 반전시위가 꾸준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침공 첫날 트위터에는 #нетвойне(러시아어로 ‘전쟁 반대’) 해시

태그를 단 게시물이 330,000건 넘게 올라왔습니다. 침공 다음날인 2월 25일 저명한 과학자이자 인권운동가인 레프 포노마레프가 작성하여 온라인에 게시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멈춰라!” 성명서에는 현재까지 120만 여 명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제1야당인 러시아연방공산당 소속 의원, 사회자유주의 정당인 통일민주당 ‘야블로코’, 여러 도시의 지방의원 등이 주도하여 발표한 공개서한 및 서명운동에도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직업별 단체들의 공개서한도 다수 발표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예술가 큐레이터, 건축가, 예술비평가 등 문화인, 연극인, 영화인, 과학자, 경제학자, 학생 및 교수, 언론인, 자선단체 및 비영리단체, IT노동자, 보건의료인, 교사, 디자이너, 패션 뷰티 산업 노동자, 심리학자, 러시아연방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등의 이름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성명이 줄을 이었습니다. 모스크바 물리기술연구소,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 국립모스크바 국제관계연구소, 스크로보과학기술연구소 등 대학의 재학생과 졸업생 명의의 성명도 속속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런 직업별 단체들의 성명은 총 60건에 이릅니다.

러시아의 제2노총인 러시아노동총연합(KTR)은 2월 25일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러시아에 자유를!”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조합원들이 각 도시에서 열리는 반전 시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KTR은 “국제노동운동의 일부로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 세계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사고하며, 그리고 모든 민중의 평화를 촉진하고 보장할 책임을 인식하며 현재



2022년 2월 25일,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반전 시위. [사진 출처: ABC News]

진행중인 일련의 사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모든 분쟁과 모순은 그것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장기간 지속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세계 평화 원칙을 고수하며 협상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의 목소리 또한 주목해야 합니다. 러시아 전역에서 활동하는 페미니스트 조직 및 개인들이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에 반대하기 위해 결성한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은 3.8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전국의 페미니스트들이 전쟁과 정부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데에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하고 전 세계 페미니스트가 동참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2월 24일부터 러시아 전역에서 반전 시위가 물결을 이루는 가운데

데 3월 20일까지 15,0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연행되었습니다. 시위가 확산되자 러시아 당국은 ‘특별군사작전’을 비판하거나 이에 관한 ‘가짜 정보’를 유포하는 죄를 신설하여, 최고 징역 5년을 부과하는 법을 3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Q12. 세계 시민들과 사회운동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는 행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도록 국경을 내주었을 뿐 아니라 참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벨라루스에서, 독립 노총(BKDP)은 러시아와 자국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전쟁 개시 당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의 부끄러운 행위에 대해 벨라루스 노동자들을 대표하여 우크라이나의 동료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우크라이나 민중들에게 연대를 표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에서 군대를 철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핵무기 반입을 위한 개헌 국민투표가 실시된 2월 27에는 전국 각지에서 반전시위가 열렸고 최소 290명이 체포됐습니다. 철도노동자들이 러시아군의 군수물품을 수송하는 기차를 멈추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의 절반가량을 수용한 폴란드에서는 난민을 지원하는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유럽 각국에서는 의약품, 의료장비, 식량, 그밖의 물품들을 모아 전달하는 활동도 벌이고 있



2022년 3월 22일,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이사회 본부 앞 광장에 밝혀진 우크라이나 평화 촉구 촛불. [사진 출처: AP]

습니다. 이와 함께 전쟁에 관한 우크라이나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워크숍, 토론회 등을 개최하기도 합니다.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스위스, 헝가리, 오스트리아, 스페인, 핀란드 등 유럽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는 주말마다 전쟁 중단을 요구하는 반전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쟁이 개시된 첫 주말인 27일에 베를린에는 50만 명(주최측 추산)이 모였고, 이탈리아와 프랑스 주요 도시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개최되었습니다.

세계 평화운동은 우크라이나 민중을 지지하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군대를 즉각 철수하고 핵위협을 중단할 것 △우크라이나 민중의 자결권과 우크라이나의 독립성 및 영토보장을 지

킬 것 △ 어떠한 차별도 없이 우크라이나를 떠난 모든 난민을 수용
할 것 △ 러시아 정부 관계자 및 푸틴의 측근 올리가르히의 러시아
밖 자산 동결 등 침략자들을 겨냥한 제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민중의 저항을 지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
법에 대해서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러시아 민중에게
피해와 고통이 가지 않는 경제제재가 가능한지, 우크라이나 민중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외에 침공에 저항하는 민중들에게 방어적 무
기를 지원하는 것이 적극적 평화주의와 양립할 수 있는 것인지, 무
엇이 더욱 시급한 과제인지 등이 쟁점입니다.

마치며

앞서 전쟁과 관련한 상황들, 쟁점들, 그리고 세계 시민사회의 대응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한국 시민들이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바는 무엇이 있을지 정리해봤습니다.

Q13. 한국 시민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한국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난민 수용에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난민 보호는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입니다. 과거 전쟁의 아픔을 경험하고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이룬 한국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한국은 2012년 아시아 최초로 유엔 난민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난민법을 제정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3월 말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시민들은 국내외 우크라이나 시민들과 연대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은, <우크라이나 평화행동>을 결성하여 3월 한 달간 ‘금요평화촛불’을 진행하고 4월에도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주한 우크라이나 시민 올라 쉘스타코바 씨는 우크라이나 평화행동이 주최한 3월 18일 ‘금요평화촛불’에 참여하여, “여러분이 이렇게 금요일 저녁을 내어 우크라이나에 지지를 표하고 우크라이나의 아픔을 기억해주시는 것은, 우크라이나 사

람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푸틴 대통령의 침공 연설부터 시작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가짜 뉴스가 퍼지는 ‘사이버 전쟁’도 벌어지는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공유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우크라이나 구호에 힘을 보태고 싶다면,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 시민이 우크라이나 시민들과 연대하고자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피해에 대한 안타까움과 도의적 책임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앞선 문항들에서 짚었듯, 이 전쟁이 확대되어 세계가 더 큰 전쟁의 포화에 휘말릴 가능성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전쟁의 결과가 앞으로 세계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이번 전쟁과 같이 다른 나라를 침공하여 현상 상태를 바꾸려는 시도가 성공한다면, 세계 각국의 팽창주의 세력에게 비슷한 군사적 모험을 부추기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제2의, 제3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막기 위해서, 우리 모두 목소리를 내어야 할 때입니다.



우크라이나 평화행동 금요평화촛불에 모인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는 모습

더 읽을 거리

사회진보연대는 이 소책자 외에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평화운동에 대한 다양한 읽을 거리를 발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글들과, 앞으로의 자료들은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pssp.org)
- 페이스북 '사회운동포커스' 페이지(facebook.com/socialmovementfocus)
- 텔레그램 '사회운동포커스' 채널(t.me/socialmovementfocus)

지금까지 나온 글들

- 러시아의 팽창정책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위기 (01.28.)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향한 모든 군사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망과 의미 (02.23.)
- 전쟁을 반대하는 러시아인들의 목소리 (02.26.)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즉각 중단하고 병력을 철수하라: 시민사회 기자회견 지상중계 (02.28.)
- 러시아 페미니스트들이 푸틴의 전쟁에 맞서 거리에 나서다: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 선언문 (03.08.)
- “평화주의는 선택지가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에티오피아 발리바르의 인터뷰 (03.13.)
-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해외 자료 번역 모음① (03.31.)